

(주)태진

R&D 분야에 집중 투자



국내 및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주)태진(대표이사 김선유)은 회사설립(1980년) 이래 R&D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어 주변 가금 관련 분야 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금자동화 생산설비 라인의 선두기업인 (주)태진 김선유 대표이사의 3가지 경영철학인 신기술개발 실천, 미래를 사고하는 습관, 창의력이 풍부한 인재경영 중시에 따라 2012년 11월에 완공한 건물 5개층 중 4개층을 연구1팀, 연구2팀, 연구3팀으로 세분화하여 R&D 관련 업무 분야로 사용하면서 1차로 2012년말 R&D 관련분야 연구인력을 충원하여 연구기능을 더욱 보강했으며, 올해 2월초에 농협중앙회에서 30여년간 근무한 후 정년퇴임한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임철교씨를 전무로 영입하면서 R&D 관련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는 등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3여년에 걸쳐 신제품 개발에 투자한 자동화 설비 5종도 올 상반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등 해외 거래처(중동지역외 20개국) 및 국내 거래처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해외 여러 나라로부터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김선유 대표이사는 2013년 1월초에 사내에 탁구장, 카페, 휴게실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직원들의 복리 후생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한국조에티스(주)

한국화이자동물약품에서 상호 변경



한국화이자동물약품(주)이 한국조에티스(주)로 사명을 변경하고 양질의 향상된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선언했다.

지난 3월 21일 루이스 하비엘 로하스 한국조에티스(주) 대표이사는 축산전문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동물용의약품의 새로운 브랜드로 재탄생한 조에티스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로하스 대표이사는 “화이자에서 동물약품 사업부가 조에티스라는 이름으로 독립됐으며 지난 2월달 1일 뉴욕 주식 시장에 상장된 후 한

국화이자동물약품(주)도 지난 3월 5일 공식적으로 회사명을 한국조에티스(주)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로하스 대표이사는 “조에티스(zoetis)는 Zoetic(생명과 관련된)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써 동물원(zoo), 동물학(zoology)이란 단어와 그 어원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는 ‘삶과 함께 하는’이라는 뜻을 지닌다”며 “이는 즉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동물들을 키우고 보살피는 전 세계의 수의사와 축산 농가들을 지원하는 기업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화이자의 동물약품 사업부로 활동하며 쌓아온 지난 60년의 경험을 토대로 축산업의 발전과 가축건강을 위한 요구를 최선의 방법으로 충족시켜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P60 ‘화제의 기업’ 참조).

(주)메리알코리아

(주)SVC과 구제역 백신 국산화를 위한 계약 체결

세계적인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동물의약 품사업부인 (주)메리알코리아(대표이사 김종영)는 지난 3월 25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대한수의사회 대강당에서 김종영 대표이사를 비롯 (주)SVC 윤인중 대표이사, 필립 드보젯 메리알 수의공중보건(VPH) 부서 구제역 총괄 책임자와 사샤 세네크(Sacha Seneque) 대동물 및 수의공중보건(VPH) 부서 아시아 책임자, 그리고 특별히 대한수의사회 김옥경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구제역 백신 생산을 위한 컨소시엄인 (주)SVC(Special Vaccine Company, 대표이사 윤인중)과 한국 내 구제역 백신 생산



관련 원료 공급 및 기술 이전을 위한 벌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벌크 공급 계약에 따라 구제역 백신의 주 원료인 항원과 부형제가 벌크 백신의 형태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며, (주)SVC 소속 5개 동물용 백신 제조사는 자체 생산 시설을 활용해 국내 농가에 공급할 구제역 백신을 생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메리알 수의공중보건(VPH) 부서는 기술 자문 및 샘플 백신의 품질 검정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서부사료(주)

환절기 대비 고객농장 서비스 강화

서부사료 주식회사(대표이사 회장 정세진)는 기온의 편차가 심한 환절기에 대비하여 농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양관리를 강화하고 영양을 고려한 강화사료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발 빠른 활동을 펼쳐 고객 농장으로부터 큰 만족을 자아내고 있다.

농장에 맞게 제공되는 환절기 강화사료 서비스는 산란계 농장과 양돈 농장을 대상으로 3월



12일부터 31일까지 약 20일간 시행되었다. 농장의 환경 및 닭의 영양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설계된 이번 강화사료는 일교차에 의한 호흡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절기 기간 동안 체력 저하 및 면역력 약화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농장 담당 서부사료 FC(Farm Consultant)들은 농장주를 대상으로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정보를 전달하여 환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서부사료 김형민 팀장은 “환절기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농장별로 맞춤 활동을 강화하고 계군별로 세밀하게 체크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생산성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산생물자원

2013년 백두사료 대리점 컨벤션 실시



두산생물자원 백두사료(대표이사 윤영호)는 지난 2월 21일 온양 그랜드 호텔에서 '2013년 백두사료 대리점 Convention' 행사를 진행했다.

윤영호 대표이사와 영업본부 임직원들 및 전국 대리점 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 실적과 올해 판매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윤영호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2013년 을 ‘재도약과 전진의 한 해’로 삼고 우리 함께 손잡고, 진정한 백두가족의 파워가 무엇인지를 온 세상에 알리는 한 해로 삼아 앞으로도 대리점과 사양가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실적우수 18개 대리점에는 해외여행 탐방의 기회가 주어졌고 2013년 한해에도 뛰어난 역량과 의지, 열정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